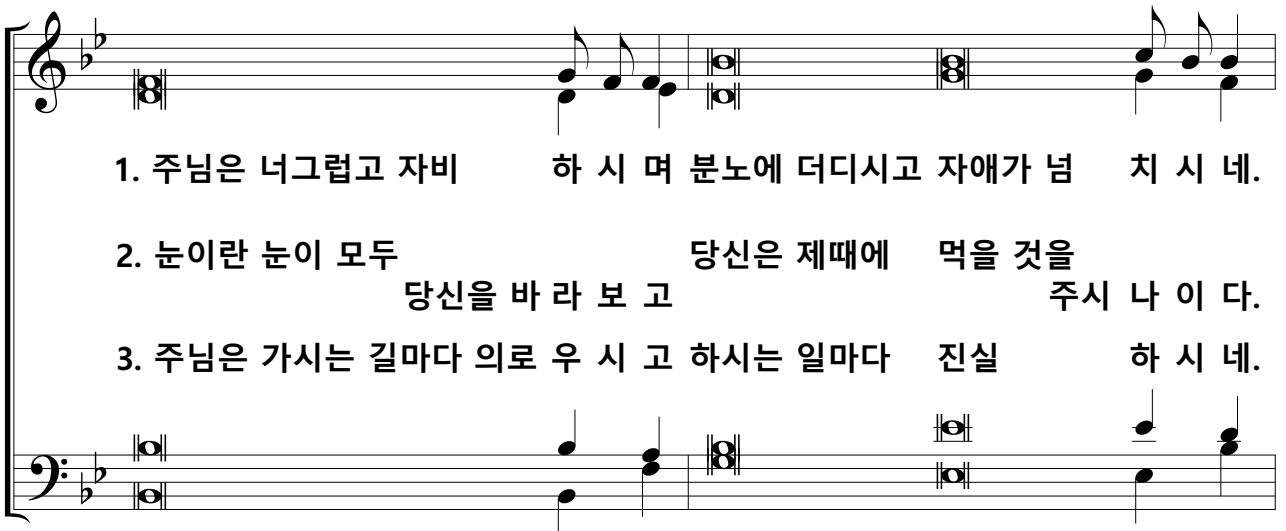


연중 제 18 주일 화답송 [가해]

시편 145(144), 8- 9. 15- 16. 17- 18



(후렴) 주님, 당신 손을 펼치시 - 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 서.



1.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 하 시 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 치 시 네.
 2.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 보 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 나 이 다.
 3.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 우 시 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 하 시 네.



주님은 모두에게 좋 으 시 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 리 시 네.
 당신은 손을 펼치 시 - 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 나 이 다.
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 - 게,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 시 네.